

버스파업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프레임 연구 -전북지역 방송3사의 저녁종합뉴스를 중심으로-

김성진*, 나미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rame of Television News Reports on Chonbuk Bus Strike : Focusing on Prime Time Reports of Chonbuk Local Televisions

Sungjin Kim*, Misu Na**

Maste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북지역 방송3사가 버스파업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였으며, 방송사 간의 보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프레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형식적 프레임에 있어 방송 3사 모두 일화 중심적 프레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뉴스보도가 과격시위와 강경투쟁 등 사건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사 갈등 사안에 관한 근본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내용적 프레임에서는 파업의 해결과정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적 절차프레임이나 제도개선 프레임은 부각되지 못하고 갈등대치 프레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버스파업에 대한 뉴스보도는 파업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과 배경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과 대안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했으며,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외에 다양한 목소리와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뉴스프레임, 텔레비전 뉴스, 사회갈등, 전북 버스파업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frame analysis of the news reports of Chonbuk bus strike broadcasted via local broadcasting companies of the Jeollabuk-do. The results showed that all Chonbuk local televisions gave more emphasis on 'episodic' frame by emphasizing demonstrations and struggles between capital and labor. In the case of content frames, news reports did not present the solution or an alternative of the strike, and the democratic process frame 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rame was not embossed. Therefore, local television news of Chonbuk bus strike was insufficient in reporting causes and backgrounds of the strike. Also, it displayed existing press routine in reporting the issue of social conflict such as a bus strike.

Key Words : news frame, television news, social conflict, Chonbuk bus strike

* 본 논문은 201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18 February 2014, Revised 19 March 2014

Accepted 20 May 2014

Corresponding Author: Misu Na(Dep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misuna@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문제제기

2010년 12월 8일 전북지역 7개 버스사업장(전북고속, 제일여객, 호남고속, 신성여객, 시민여객, 전일여객, 부안스마일교통)은 노조인정, 임금 개선, 근로시간 단축, 식사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기존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이들은 노조 간부진과 사측이 통상 임금을 100만원으로 대체하라는 등의 부당 협상에 반발해 2010년 6월에서 8월, 민주노총으로 결합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한국노총의 이외의 다른 노조의 인정은 복수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지음에 따라 협상은 난항이 있었으며, 약 5개월에 걸친 파업 기간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더욱이 2012년 11월에 파업이 다시 진행되어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주버스파업은 집단 간의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는 만큼, ‘언론이 각 입장을 조정하고 해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가’^[1]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한 보도 시, 현상의 과정뿐만 아니라 발생하게 된 원인과 진상과악에 대한 심층적 보도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노사 간의 갈등은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수용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론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방향이나 의제를 채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언론은 사회적 문제에 관해 중요한 의제설정자 역할을 하며, 언론이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뉴스 프레임은 해당 현실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2]. 미디어 프레임에 관하여 리프만(Lippmann)^[3]은 신문의 모든 과정은 선택의 결과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지문의 길이 이를 어느 정도로 정하며,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 등이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택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뉴스를 터크만(Tuchman)과 기틀린(Gitlin)^[4]의 현실구성관점에서 보면, 뉴스는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담론들을 포함한 미디어 담론이 조직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하틀리시가 “뉴스란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보도’ 및 ‘설명’이다”라고 정의한 것처럼, 뉴스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사실적 나열이기 보다는 선택과 배제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도는 갈등을 부각하여 일어난 사건의 소요 장면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대립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텔레비전 뉴스는 시청자에게 강조되고 부각되는 이슈에 대한 해석과 의견형성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건이 선택되고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시청자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에 대한 뉴스는 다양한 문제 접근방식이 있지만 갈등과 대치라는 선입견이 먼저 생성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프레임 연구는 뉴스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현실이 지니는 의미를 차별적으로 분배하고 상징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해 부여하는 특정한 의미를 밝혀내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5]. 즉 뉴스프레임 분석은 전주시내버스 파업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미디어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평가, 해석함으로써 언론이 현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갈등을 뉴스프레임으로 분석하여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현실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12월에 일어났던 전주시내버스 노조파업에 대한 전북지역 텔레비전 뉴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프레임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 노사 간의 첨예한 사회갈등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할 때, 이러한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슈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형성함으로써 갈등에 대한 현실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뉴스프레임의 개념

뉴스프레임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론의 개념이나 접근

방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왔고,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됨으로써 보편적으로 정의되기 어렵다[7]. 미디어 연구와 관련된 프레임은 사회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 두 가지 전통으로 규정되어 오고 있다. 사회학적 접근방식은 미디어 프레임 자체에 관심을 두는 반면, 심리학적 접근은 프레임에 따른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을 말한다[8].

먼저, 미디어 프레임에 초점을 두는 사회학적 접근방식으로서, 갠슨(Gamson)[9]은 프레임이란 사건이나 이슈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뉴스에서 내포하는 여러 의미들 중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로서 이슈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정의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프레임 개념을 처음 제기한 고프만(Goffman)[10]은 프레임은 '해석의 스키마(schemata of interpretation)'로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맥락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정의(defini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프만(Goffman)은 현실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뉴스는 정보들의 단순한 묘사라기보다는 '파편적인 사실(strip)들'을 일정한 프레임으로 재조직하여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재구성된 현실로 보고 있다. 즉 프레임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건의 대한 지배적인 해석에 관여한다는 것이다[11].

또한 뉴스에 의해 구성된 프레임이 시청자의 현실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엔트만(Entman)[12]은 유사한 맥락에서 프레임을 "현실을 인식함에 있어 어떤 점들만 선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그 텍스트가 의도하는 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원인을 진단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호하게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프레임이란 쟁점의 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측면은 배제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뉴스 내러티브 안에 의도를 갖고 특정한 단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냄으로써, 특정 아이디어는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은 덜 이슈화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프레임은 인지된 현실의 특정 측면만을 선택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도덕적 평가와 정의를 내림으로써 선택된 측면들을 뉴스 내러티브 안에서 현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현저성의 효과는 수용자들이 특정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미를 인식하며, 정보를 기억하도록 하여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이다[13]. 또한 기틀린(Gitlin)이 제시한 프레임은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고, 어떤 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속성이 있다. 지속성이란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프레임된 사건 보도는 인지, 해석, 선택과 배제라는 창을 통과한 마지막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프레임 방식은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학적 접근방식은 특정 이슈를 미디어가 어떻게 프레임하며,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프레임의 속성을 밝혀내는데 중점을 둔다.

한편, 사회학적 접근과는 별도로 프레임 효과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적 접근방식은 프레임이 수용자의 현실인식이나 행동 및 태도, 판단 등에 영향을 주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아이엔거와 시몬(Iyengar & Simon)[15]은 프레임이란 문제를 진술하는 데 있어 변형이 생김에 따라 판단에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프레임이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일정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프레임은 수용자의 현실인식, 판단,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프레임은 미디어에 의존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가 되고, 결국 언론의 프레임은 수용자가 현실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16]. 심리학적 접근의 연구는 프레임이 생산하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의도적 프레임의 조작이 개인의 인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적 접근의 프레임 연구들은 개인의 사고에 프레임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경험적 근거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17].

본 연구는 프레임 연구의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심리학적 접근의 프레임 효과를 밝혀내기보다는, 뉴스가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함으로써 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학적 접근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어떻게 틀 지으며, 이에 대한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2.2 뉴스 프레임 연구

뉴스 프레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뉴스의 이야기 구성방식, 즉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와 이야기 내용

에 초점을 둔 분석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18].

먼저 형식적 측면의 프레임에 초점을 둔 아이엔거(Iyengar)[19]는 뉴스 기사의 표현 방식에 따라 뉴스 프레임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어떤 공공이슈나 특정 사건, 사례를 자세하게 보도한다.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원인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밝히기보다 사건을 개별화된 개인 또는 집단의 문제로 묘사하고 그 결과로서 드러난 징후적 사건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한편,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사회문제의 원인이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프레임이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에는 전문가의 증언, 통계적 제시 등이 사용된다. 두 프레임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책임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특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돌리는 반면,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역사적인 큰 맥락 속에서 사회구조적 배경에 책임을 묻는다[20].

아이엔거와 시몬(Iyengar & Simon)[21]은 일화 중심적 프레임에 노출된 피실험자는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개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책의 성과를 개인과 특정집단에게 돌린다. 반면에 주제 중심적 프레임에 노출된 피실험자는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책의 성과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걸프전에 대한 미국의 뉴스보도의 분석을 통해 일화중심적 프레임을 미디어가 주로 사용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찬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22]. 아이엔거의 일화 및 주제중심적 프레임 구분은 후속 연구들에서 형식적 측면의 프레임을 분류하는 이론적 틀로 적용되었다[23].

한편 내용적 차원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기틀린(Gitlin)[24]의 60년대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시위에 관한 연구에서 신좌익 학생운동에 대한 뉴스보도의 보도의 분석에서 신좌익 운동에 대한 사소화(trivialization), 양극화(polarization), 내부갈등의 강조 등의 프레임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엔트만(Entman)의 미국의 이란 여객기 격추사건과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의 뉴스 보도의 차이에

관한 분석결과, 미국 언론은 어휘나 시각적 이미지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이란 여객기 격추는 단순히 기술상의 문제로 여론을 형성하는 반면 KAL기 격추사건은 도덕적인 분노의 대상으로 의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5]. 이들 연구에서는 뉴스 보도가 특정한 시각에서 반복되는 이미지, 어휘, 개념을 반복함으로써, 뉴스프레임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26].

또한 시멧코와 벨켄버그(Semetko & Valkenburg)[27]는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귀납적 접근방법과 연역적 접근방법을 구분하고 있는데, 귀납적 접근방법은 프레임에 고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뉴스에서 발견되는 모든 프레임을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신뢰도가 낮으며,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프레임은 후속연구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연역적 접근방법은 고정된 특정 프레임을 내용분석 변인으로 정의한 후 프레임 변인이 뉴스에서 반복되는 정도를 살피는 검증 방법이다. 연역적 방법의 경우 뉴스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프레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프레임을 사후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을 보완하여 분석함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보도에 대한 프레임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한다. 형식적인 측면의 프레임은 일화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보완, 사용하여 뉴스내용의 프레임 요소를 미리 선택하여 유형화한 후에 전북버스파업에 대한 뉴스보도에서 발견되는 반복, 강조된 핵심 주제를 찾아 프레임을 추가, 보완하고자 한다.

2.3 사회갈등에 대한 뉴스프레임

사회적 갈등의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갈등 당사자들은 공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28]. 여기서 언론의 역할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사회문제의 핵심보다는 조직이나 집단 간의 갈등 측면을 부각시켜 수용자들의 관심과 시선

을 잡는 기회로 본다. 양정혜는 의료분쟁에 대한 일간지의 보도의 프레임 분석을 통해, 의료분쟁에 대한 보도가 일화 중심적 프레임(episodic frame)을 사용하여 의료분쟁의 원인이나 갈등의 본질은 배제하고 파편화된 부분만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²⁹⁾. 또한 의료분쟁과 관련된 연구에서 언론이 의사들보다는 정부에 더 정통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인 반면 의사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집단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용호와 김현종³⁰⁾도 미디어 보도에 관해서 '경찰 대 시위대'라는 프레임을 통해 시위대가 사용하는 폭력은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경찰이 사용하는 폭력은 사회질서나 회복을 위해 필요함을 부각시켰다. 특히 임양준³¹⁾은 갈등보도 프레임의 연구들에서, 언론은 이미 정형화된 몇 개의 뉴스 프레임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이란 당사자 간의 첨예한 이익을 우선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나게 되는데, 뉴스는 갈등에 대한 심층적 원인과 동기에 대한 면밀한 취재보다는 시청자에게 명확히 드러나는 파업이나 시위 등 눈에 보이는 사건에만 보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양정혜³²⁾도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 시, 입장차이가 상이하게 다른 두 조직 간의 대립으로 단순화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언론이 사회적 갈등에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의 차이가 확연히 두드러진 두 집단 간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는 보도관행을 지적하고 있다³³⁾. 갈등이 발생할 때 극명하게 부딪히는 두 집단뿐만 아니라 갈등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관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노사 갈등의 뉴스보도는 제3, 제4의 관점을 배제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멀어지게 함을 보여 준다³⁴⁾.

이처럼 언론의 사회적 갈등보도는 기존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옹호하는 프레임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³⁵⁾.

또한 사회적 갈등 이슈에 관한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사건에 따른 방송사의 시각을 알 수 있도록 보도뉴스가 갈등이슈와 관련된 여러 측면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지 연구자는 주제에 적합한 주요 쟁점들로 구분되어 분류하였다.

또한 텔레비전의 노사갈등 뉴스를 분석한 글래스고우 대학 미디어그룹(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³⁶⁾은 텔레비전 뉴스가 언어적, 시각적 기교를 통해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거나 왜곡함으로써 노사 갈등의 실제 문제를 등한시하고 일차적인 현실자체만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갈등의 한 당사자인 사측의 인터뷰는 잘 정리된 사무실에서 실시함으로써 '권위와 책임감이 있는 신뢰의 이미지'를 부여한 반면, 노동자들은 길거리의 시위현장에서 인터뷰를 함으로써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무질서 집단으로 투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기존 연구 결과는 미디어 보도가 대부분 갈등사안을 구조적이며 심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첨예한 갈등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관행적인 문제해결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미디어 보도가 갈등의 근본원인을 설명하거나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현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보도관행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뿐더러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데 방해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역 갈등이슈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전주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프레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일사건에 대해 지역 방송사들의 보도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같다.

첫째, 전주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에서 사용된 프레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는 전주시내버스 파업을 둘러싸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주장들을 다양한 입장에서 살펴보고, 특히 뉴스보도에서 강조되고 부각된 주요프레임이 어떤 것들인지 도출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전주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에 나타난 주요행위자들은 누구인가?

뉴스 프레임의 특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입장과 관점에서 프레임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뉴스보도는 인용되고 있는 주요 행위자들은 보도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뉴스보도가 다양한 관점에서 갈등집단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한 입장과 시각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전북지역 텔레비전3사의 뉴스보도에 대한 프레임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지역사회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다루는 방송사의 입장이나 보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주시내버스 파업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 방송사별로 어떠한 프레임이 부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연구방법

3.2.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본 연구는 전주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을 살펴보기 위해 전북지역 텔레비전 3사(전주 KBS, 전주 MBC, JTV)의 저녁종합뉴스, 즉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JTV 8시뉴스'를 분석대상 하였다. 이를 분석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주요 시간대에 방송되는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뉴스이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매일 방송됨으로써 다른 매체에 비해 접근성도 높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은 버스파업을 시작한 2010년 12월 8일에서 노사 간 최종합의가 발표된 2011년 4월 26까지 5개월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총 뉴스꼭지 수는 전주 KBS 51건, 전주 MBC 107건 그리고 JTV 78건으로 총 236건이었다.

3.2.2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뉴스프레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뉴스 프레임은 크게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형식적 프레임은 아이엔거(Iyengar)^[37]의 분류 방식을 사용하여 일화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일화중심 프레임은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슈를 틀 짓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버스파업에서 노숙의 폭력

과 난동, 경찰의 폭력 진압 등을 현장 보도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주제중심 프레임은 사건에 대한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구조 상황에 이슈를 공격적인 틀로 지어, 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는가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는 방식이다^[38]. 즉 전주 버스파업이 일어난 사회적 배경 및 노사 간의 갈등, 보조금에 대한 부실한 관리 등이나, 갈등조정자인 전라북도 및 전주시의 행정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보도를 포함한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상호 보완하였다. 연역적 방법은 언론이 보는 세계는 정형화된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이며, 귀납적 방법은 정형화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연구 대상의 특성에 근거해 프레임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전주시내버스파업에서 나타난 갈등 양상을 파악하여 임양준^[39]의 집단적 갈등 이슈 프레임을 부분 차용하면서, 전주 시내버스파업이라는 특수한 갈등이슈에 따른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프레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파업뉴스보도에서 보여주는 핵심주제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체적 의미를 규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핵심 구성 아이디어(core organizing idea)^[40]로, 각 핵심주제는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아이디어로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현저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내용을 기준으로 프레임을 도출했다^[41].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시내버스 파업 관련 뉴스프레임을 기존의 갈등 프레임 연구에서 일부 차용한 후, 추가로 뉴스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현저성과 반복의 의미가 포함된 프레임 유형을 추출하였다. 코딩에 앞서 연구자가 먼저 뉴스를 시청한 후 다른 코더에게 지침을 숙지시키고, 100건의 뉴스를 함께 보면서 프레임분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전주시내버스 파업과 관련된 뉴스보도(총 217건)에서 인용된 사람 혹은 집단을 알아봄으로써 주요행위자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구자 2명이 각각의 뉴스를 보면서 프레임별 기사를 평가했다. 또한 전체 기사 중 50건을 추출하여 홀스티(Holsti) 신뢰도 계수공식^[1]에 적용한 결과 0.82의 신뢰

1) 신뢰도 = $2M/n1+n2$ (n1: 조사가 A가 코딩한 수, n2: 조사자 B가 코딩한 수, M: 조사자 A B가 코딩한 수 가운데 일치된 수).

도를 얻었다.

3.2.3 프레임의 유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적 측면에서 전주 시내 버스 파업보도에서 프레임을 추출한 결과, 책임소재 프레임, 무능한 정부 프레임, 피해자 프레임, 갈등대치 프레임, 민주적 절차 프레임, 제도개선 프레임, 법과 질서 강조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사회적 서비스 프레임 등 9개 프레임유형이 나타났다. 각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책임소재 프레임

전주버스파업의 발생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프레임이다. 민주노총 운전자 측과 사측이 파업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책임전가하는 태도의 보도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버스노조의 주장에 회사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략) 버스회사 측은 이 운전사의 한 달 평균 임금은 240만원 수준이라며, 노조가 임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주 KBS 뉴스, 2010.12.20)

2) 무능한 정부 프레임

노사 갈등상황과 관련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문제해결에 대한 미흡한 태도를 비판하는 프레임이다. 버스 보조금이라는 정부의 효율적인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중재자로서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프레임을 다음 보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노사간 대화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제 대화가 실패하면서 중재에 나섰던 전주시도, 전라북도도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선 전주시와 버스 노사가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노사는 전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파업을 분리 또는 일괄 협상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결국 30분 만에 소득없이 헤어졌습니다.” (전주 MBC 뉴스 데스크, 2010.12.17)

3) 피해자 프레임

피해자 프레임은 전북 버스파업 보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버스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뉴스보도들이 이에 속한다.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으로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장사가 안 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중략) 유난히 길었던 한파로 가뜩이나 힘든데 장기간 버스 파업으로 손님까지 줄어 장사가 안 된다며 하소연합니다. 새봄을 앞두고 활기가 넘쳐야 할 전통시장이 노사 간 대화마저 단절된 버스 파업의 여파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주 KBS 뉴스, 2011.2.18)

4) 갈등대치 프레임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립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물리적 충돌과 폭력을 강조하는 프레임이다. 어느 한쪽만의 입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사측, 공권력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 대립집단 간의 갈등과 대치상황을 보도하는 프레임이다. 즉, 의견대립이나 갈등을 부각시킨 것이 특징으로 파업의 첨예한 대립상황을 보여준다.

“파업 시설물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지면서 경찰과 노조원들 간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차고지에 갇혀 있던 버스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빚어진 겁니다. 먹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욕설과 고성어 오갑니다. (중략) 강제집행 뒤 차고지에서 버스를 끌어내느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노조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시내버스들이 차고지를 차레로 빠져 나가자 노조원들은 시내에 불을 붙이며 격렬하게 맞서 오후 늦게까지 긴장이 계속 됐습니다.” (전주 KBS 뉴스, 2011.2.11)

5) 민주적 절차 프레임

노사 양측이 갈등과 비난 상태에서 벗어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촉구하거나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프레임이다. 파업의 종결을 의미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시하는 뉴스보도이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에도 평행선을 달리던 버스 노사가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꿴습니다. 노사가 의견

차를 좁힌데 이어 상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략) 버스 노사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작씩 물러나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4가지 사항에 대해 실무 협상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주 MBC 뉴스데스크, 2011.1.13)

6) 제도개선 프레임

노사갈등과 대치 등 사태의 원인과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와 체제의 개선을 제안하는 대안적 프레임이다. 버스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준공영제 도입과 같은 뉴스보도가 이에 속한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노선 관리 회계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공기업이 운영하는 완전공영제가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신설 노선과 중복 노선이 많은 전주시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전주 MBC 뉴스데스크, 2011.2.17)

7) 법과 질서 강조 프레임

적법한 법적 테두리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묻는 프레임을 말한다. 특히 노동자 측의 파업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준법성을 우선시한다. 또한 노측은 사측의 전세버스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과 위법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두 달여 계속되고 있는 전주지역 시내버스의 파행 운행이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최근 민주노총 버스노조가 전세버스의 밤샘주차 등 불법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하자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전세버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 KBS 뉴스, 2011.2.13)

8) 인간적 흥미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사람들의 동정, 놀라움, 뉴스 이용자의 흥미와 주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성적 측면에 호소하는 프레임이다. 즉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뉴스들로서, 파업과 직접 관련 없는 범죄율증가와 운전자의 생활고 등을 다루는 뉴스보도가 이에 해당된다.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절도와 강도 등 4대 강력범죄의 검거율이 최근 6개월 새 반 토막이 났습니다. 요즘 전북 경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중략) 버스파업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경찰의 민생치안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주 KBS 뉴스, 2010.2.25)

9) 사회적 서비스 프레임

공공적 성격을 지닌 버스운행에 관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버스 운행률에 관심을 두는 기사가 이에 속한다. 특히 사측이 강조하는 버스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에 속한다.

“전주지역의 시내버스 운행률이 80% 가까이 회복됐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지역에서 운행된 시내버스가 지난 12일 2백 67대, 어제 2백 31대로 주말과 휴일에는 60%대에 머물렀지만 오늘은 2백 99대가 운행해서 78점 2%의 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MBC 뉴스데스크, 2011.3.15)

4. 연구결과

4.1 전주버스파업에 대한 뉴스프레임의 특성

4.1.1 형식적 측면의 프레임 분석결과

전주버스파업에 대한 뉴스보도의 형식적 측면의 프레임을 살펴본 결과, 일화중심 프레임이 대부분을 차지(81.77%)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중심 프레임 전체 보도의 18.22%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뉴스보도들이 일화중심 프레임을 많이 사용함을 밝힌 선행연구들⁴²⁾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런 결과는 매일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거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폭력적 사태의 발생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버스파업이라는 특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의 경우 매일 새롭게 전개된 상황을 위주로 상황이 발생하는 현장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보도관행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파업관련 뉴스는 다른 주제보다 일화중심 프레임의 보도경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버스파업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보도하는데 있어서 노사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구성하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복수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사측의 부당함과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반면, 사측은 공공적 서비스를 위해 정당하게 버스 노동자의 처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여 갈등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텔레비전 뉴스는 민주노총의 강경한 대응과 파업의 결연한 의지 장면을 집중 보도 하고 있다. 한편 사측도 절대 타협의 의사가 없음을 대비해서 보도 하고 있었다.

방송사간의 차이를 보면, 전주 KBS의 주제중심 프레임은 18건(35%)으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BS가 버스파업 보도를 단순사실로 전달하기 보다는 파업기간에 따라 특적으로 기사를 기획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버스파업의 초기는 <집중 1, 2>를 통해 파업의 해결을 제시했으며, 중기는 보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파업이 끝난 직후에는 파업의 해결 과정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등 파업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뉴스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역방송 3사는 전주버스파업에 관해 사안의 분석과 탐색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즉 버스파업 발생의 여러 원인 중 전주시의 보조금 관리, 사측의 요금 관리제도, 복수 노조의 설립배경에 대한 계획적이고 심층적인 취재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2.2 내용적 측면의 프레임 분석결과

전주시내버스 파업관련 텔레비전 방송보도에 대한 내용적 측면의 프레임 분석을 통해, 버스파업 보도에 나타난 주요프레임의 구성을 살펴보고 각 방송사별 프레임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프레임의 구성

전주시내버스 파업보도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프레임은 갈등대치 프레임인 것으로 나타났다(30.5%). 이는 버스파업 보도가 서로의 상반된 입장을 강하게 대비하거나 물리적 충돌 등의 내용을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파업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업보도에서 갈등대치 프레임이 높은 것은 이해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갈등이슈

에 관한 본질보다는 갈등 자체에만 집착하여 부각시키는 경향은 언론이 사회합의를 이끌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고해 봐야 할 문제점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비중있게 나타난 프레임은 피해자 프레임과 무능한 정부 프레임(각각 16.1%)이었다. 피해자 프레임은 특히 시민들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 프레임은 노조를 시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칫 자신들의 요구조건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레임은 파업의 결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파업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시청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의 단편만 아는 시청자는 불편만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조속한 합의만을 촉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전주시내버스 파업의 경우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이 됐는데, 이는 피해자 프레임을 통해 버스파업의 합의를 촉구하는 여론과 더불어 전주국제영화제의 흥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버스파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지목됐기 때문인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같은 구성비율을 차지하는 무능한 정부 프레임의 뉴스보도에서는 버스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보조금 과다지급논란과 허술한 버스용역 보고서를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언론은 전주시와 전북도청이 노사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양측의 눈치만 보는 미약한 중재자로서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 프레임은 8.47%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버스보조금 지원금의 행정적 제도개선과 준공영제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지방의 예를 들어 준공영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북버스사업자와 노동자측의 기존의 맥락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전북지방의 현실상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공영제를 전북지방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파업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추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 프레임(7.2%)은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언론이 파업 초기에는 노사양측의 이상적인 갈등해결 방법으로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노사양측의 대립상황을 강조하는 기존의 갈등이슈의 보도로 뉴스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적 절차는 기본적인 갈등해결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들이 언론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서비스 프레임은 6.35%를 차지하였다. 이는 버스 운행률과 관련된 시민의 편의를 강조하는 뉴스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뉴스는 대체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따라 버스 운행률이 승객의 불편을 수치화하는 연상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방송사별 내용적 측면의 프레임 특징

전주버스파업과 관련한 지역방송 3사의 뉴스프레임을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전주 KBS(27.47%), 전주 MBC(30.08%), JTV(32.05%) 모두 갈등대치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이슈에 대한 뉴스보도가 여전히 대립과 반목이라는 갈등대치상황만 보도하는 기존의 보도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나타난 프레임유형 순으로 살펴보면, 전주 KBS는 갈등대치(27.45%), 무능한 정부(21.56%), 피해자(15.68%), 책임소재 프레임(9.8%) 순으로, 전주 MBC는 갈등대치(30.08%), 피해자(17.75%), 무능한 정부(12.82%), 민주적 절차 프레임(8.41%) 순으로 나타났다. JTV는 갈등대치(32.05%), 피해자(14.1%), 무능한 정부(12.82%), 제도개선 프레임(10.25%) 순으로 조사됐다.

전주 KBS가 무능한 정부 프레임 비율이 다른 방송사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버스파업의 발생원인이 허술한 보조금 관리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무능함을 다루는 뉴스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주 MBC와 JTV는 정부의 무능함보다 시민의 불편함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파업의 원인을 묻는 책임소재 프레임은 전주 KBS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주MBC의 경우, 시민단체가 주장한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보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 프레임(8.41%)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버스파업의 해결 대안으로 준공영제 실시라는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프레임은 JTV가 가장 높게 나타나 문제해결의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종합해 보면 기존의 갈등이슈 프레임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주버스파업 보도 역시 노사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강조하며, 노측의 강경한 투쟁과 사측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갈등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버스파업은 그것이 갖는 공공서비스 성격 때문에 피해자

프레임이 방송3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무기력하게 피해만 당하는 수동적인 시민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주 KBS의 경우 버스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 감독한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무능함을 강조함으로써 친정부 성향의 KBS의 기존보도 관행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주 MBC는 버스파업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집회를 몇 차례 보도함으로써, 버스운행차질이라는 공공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모습이 타 방송사에 비해 부각되어 나타났고 있었다. JTV는 버스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방안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강조하여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였으나, 전주버스파업이 갖는 지역적 갈등의 특수성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파업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2 주요행위자 분석결과

주요행위자 분석은 전주버스파업과 관련된 뉴스보도에서 인용된 사람 혹은 집단을 살펴보는 것이다. 언론이 자신들의 이념을 전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유사한 성향의 정보원을 통해 의견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요행위자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보도가 버스파업에 대해 누구의 시각에서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4.2.1 주요행위자 빈도수

전체 분석대상 뉴스에서 가장 비중있게 나타난 행위자는 노측인 민주노총(27.81%)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어서 시민(24.81%)과 전주시(13.9%)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측의 입장(12.4%)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행위자 순위를 살펴보면, 전주 KBS는 시민(25.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민주노총(22.36%) 그리고 전주시(17.1%)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 MBC의 경우는 민주노총(27.36%), 시민(26.31%), 전주시(13.68%)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점은 시민단체(10.52)의 빈도가 다른 방송사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JTV의 경우, 민주노총(27.81%)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민(24.81%)과 전주시(13.9%)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보도의 경우, 갈등의 당사자이자 주요 행위자로서 민주노총과 사측을 비교해볼 때, 민주노총이 74건(27.81%)으로 사측의 33건(12.4%)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지역방송 3사가 노측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24.81%)이 주요 행위자로서 부각이 되었는데, 버스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보도가 많았고 이는 파업의 일차적 피해자는 시민으로 귀결된다.

한편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교수와 변호사 그리고 버스 특별위원회는 대략 1%로 내외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민주노총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방적인 방송보도 그리고 시민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뉴스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별사건 중심 즉 일화중심적인 보도경향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다양한 여러 집단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도는 사건을 단순화시켜 표상하기 쉽다⁴³⁾. 그 결과 전주버스파업의 문제는 노사양측의 의견대립이라는 일차원적인 집단 간 갈등문제로 단순화하여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4.2.2 전북지역 텔레비전 3사의 프레임 유형별 주요 행위자 구성

전주버스파업 보도에 있어서, 각 지역방송사별로 프레임에 따라 어떤 행위자가 많이 등장하며 이슈에 대한 어떤 입장과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전주 KBS 9시뉴스

전주 KBS 9시뉴스에서는 시민(19건)이 가장 비중있는 주요 행위자로 나타났는데, 시민은 특히 피해자 프레임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다. 이는 전주버스파업의 본질적인 문제인 파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보다는 시민이 피해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갈등해결에 감정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파업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나약한 시민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 프레임에서는 시민의 입장이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는 반면 전주시는 8건, 사측은 6건으로 나타나, 시민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민의 공공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관련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 프레임

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주시는 버스 파업의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이는 전주시의 주요 행위자 빈도는 사회적 서비스 프레임에서 높게 나타나(8건) 공공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행위자로 묘사되었다.

또한 갈등의 주체인 노사양측이 주요 행위자로 나타난 프레임을 살펴보면, 양측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측은 사회적 서비스 프레임에서 주요 행위자(6건)로 등장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찾고 있는 반면, 노측은 법과 질서 강조 프레임에서 주요 행위자(4건)로 나타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즉 파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사측이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체인력투입의 불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한편 제도개선과 민주적 절차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러한 프레임에서는 인터뷰 횟수가 적게 나타나 방송사의 관심이 갈등과 피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사양측의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인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을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밖에도 KBS 뉴스보도는 전체적으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주요 행위자 수가 적게 나타남으로써, 관련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주MBC의 경우 보도건수(107건)가 많아 인터뷰 횟수도 높게 나타났다.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주요 행위자는 민주노총(26건)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모든 프레임 유형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민주적 절차 프레임과 법과 질서 강조 프레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민주노총의 경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터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KBS와는 달리 노조 측의 주요 쟁점인 파업의 적법성과 사측 대응의 불법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전주 MBC의 경우, 갈등의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사측의 등장 비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노측(26건)의 주요 행위자 비율이 사측(10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MBC의 경우 프레임의 측면에서나 주요 행위자 빈도의 측면에서 모두 민주노총의 입장을 더 부

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측이 등장한 프레임 유형은 KBS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 사회적 서비스 프레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6건). 즉 민주노총과는 다르게 공공서비스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인터뷰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 프레임에서는 전주 KBS와 마찬가지로 주요행위자로서 시민(22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 반면 사회적 서비스 프레임에서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시민은 버스파업의 피해자며 공공서비스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 프레임에서 시민단체가 비중있는 주요행위자(4건)로 등장하여 KBS보다는 상대적으로 버스파업에 대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보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BC뉴스의 보도 중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무능한 정부 프레임(11건)에서 주요행위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2건), 시민단체(2건), 시의원(4건) 행위자의 입장제시를 통해 전주시는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나타나고 있었다. 방송 3사중에 MBC 보도가 정부를 압박하는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버스파업에 대한 전주시의 단일한 태도를 비교적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주 MBC 보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행위자들의 현지취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주적 절차 프레임이나 제도개선 프레임에 통해 보도함으로써 버스파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이 엮보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쪽(노조)의 입장에서 주요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약자의 입장에서 이슈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3) JTV 8시 뉴스

JTV 8시 뉴스에서도 전주 KBS와 전주 MBC와 유사하게 민주노총(31건), 시민(22건)이 가장 비중있는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는 사측의 입장보다 노조의 입장이 반영되고 아울러 피해자 프레임이 주요프레임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JTV 뉴스는 주요행위자로서 민주노총이 26건, 사측 12건 등장함으로

써 다른 방송사에 비해 양측의 비중이 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민주노총의 입장이 압도적으로 더 자주 보도되어 일방적으로 노측의 입장이 더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JTV뉴스의 경우, 피해자 프레임(32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여기서 시민(22건)은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났지만, 그 밖에 민주노총(3건), 한국노총(2건), 시민단체(5건)가 주요행위자로 추가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행위자를 통해 파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더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파업을 해결하려는 원인분석보다는 파업결과에 따른 피해를 더 강조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JTV 뉴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책임소재 프레임(12건)으로 전주 KBS(4건), 전주 MBC(5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JTV 뉴스는 버스파업의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각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대부분 인용됨으로써,²⁾ 버스파업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몰아붙이는 감정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책임소재, 민주적 절차, 법과 질서의 강조 프레임에서 각 5회씩 주요행위자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JTV 뉴스에서는 노조측의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파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보여주는 노측의 인터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측은 사회적 프레임에서 주요행위자로 나타남으로써, 타 방송사와 유사하게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 운행의 공공적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는 행위자로서 나타나고 있었다.

시민의 경우는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22건)로 나타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성이 배제되고 수동적으로 당하고 억울함만 호소하는 나약한 시민성을 보여주는 인터뷰가 대부분이었다.

이상으로 볼 때, JTV 뉴스는 민주노총이 다양한 프레임에서 주요행위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인터

2) 이와 관련된 뉴스를 예로 들면, “파업.. 전라북도 뭐하나?” (2010. 12. 16), “한국 노총 ‘민주노총이 위협’, 민주노총 ‘거짓’” (2011. 01. 06), “한심스런 버스 특위”(2011. 01. 21) 등이 있다.

뷰 횟수가 현저히 많았기 때문에 노조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갈등의 당사자인 양측의 입장이 균형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임소재 프레임이 타 방송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12건), 이슈의 원인규명이나 해결보다는 각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를 통해 오히려 갈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5. 연구의 결론 및 한계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12월에 발생한 전주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지역 방송사의 저녁종합뉴스 보도의 프레임분석을 통해, 지역 언론이 버스파업 이슈를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파업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전주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지역 방송 3사의 프레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주시내버스파업에 대한 지역뉴스보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화 중심적 프레임이 주를 이루었는데, 즉 세 방송사는 파업의 구조적인 원인과 본질을 밝히고 해결을 찾기 보다는 갈등의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었다. 파업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노사 양측의 비민주적인 근로관행 및 이를 중재하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의 미흡 등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파업의 물리적 충돌과 침여한 갈등과 같은 사건중심의 보도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버스파업과 관련하여 비중 있게 부각된 내용적 프레임의 유형은 책임소재, 무능한 정부, 피해자, 갈등대치, 민주적 절차, 제도개선, 법과 질서, 인간적 흥미, 사회적 서비스프레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방송 3사 모두 갈등대치를 프레임을 가장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었다. 반면 책임소재, 민주적 절차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프레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으로써 갈등이슈의 전형적인 보도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둘째, 주요행위자 분석에서는 갈등당사자였던 사측과

민주노총 이외에 시민이 가장 비중 있는 행위자로 나타났다. 시민이 주요행위자로 등장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크게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주 KBS 보도의 경우 전주 MBC와 JTV보다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주요 행위자로 나타남으로써 지역정부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전주 KBS는 전라북도과 전주시가 파업해결의 실마리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노사양측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방정부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전주 MBC와 JTV는 전주 KBS보다 민주노총의 인터뷰 횟수가 사측의 인터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노조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고 있었다.

한편 주요행위자에 따른 각 프레임 유형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민주노총은 민주적 절차와 법과 질서 강조프레임을 사용하여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대체인력을 추가로 투입한 사측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서비스프레임에 주요행위자로 등장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사회적 서비스프레임을 통해 사측은 민주노총을 공공 서비스를 방해하는 대상으로서 틀지우고 있었다.

또한 지역방송 보도에서 버스파업은 노사양측의 갈등이지만 버스의 공공서비스 특성상, 시민의 피해자프레임이 부각되어 나타났는데, 노사 양측보다 시민의 인터뷰 횟수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방송 3사 모두 시민을 무기력하게 당하는 피해자로만 보여줌으로써 파업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나약한 시민성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적 서비스 프레임에서는 시민이 주요행위자로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간혹 시민단체가 파업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뷰가 있었지만 지역 정치인을 기반으로 둔 단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의 파업해결의지를 나타내는데 대표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주버스파업에 대한 각 방송사 뉴스보도의 프레임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전주 KBS의 경우, 타 방송사와는 달리 무능한 지방정부 프레임 비율과 주체중심 프레임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버스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허술한 행정 감시와 파업 해결을 위한 준

공영제 도입에 관한 특집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하였기 때문에 보인다. 반면 전주MBC와 JTV의 경우, 일화 중심적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즉 노사 양측의 물리적 대립이나 긴장관계를 더 크게 부각시켰다. 또한 노측의 인터뷰횟수가 전주 KBS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민주노총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방송 3사는 파업의 해결과정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적 절차프레임이나 제도개선 프레임은 부각되지 못하고 갈등대치 프레임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업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과 배경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이 부족하고 대안적인 해결 방안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순사건중심 보도가 주를 이루고 파업의 본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버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의 문제, 노측의 일방적인 파업선언, 전주시의 보조금 관리 소홀 문제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의 주요한 역할인 갈등의 조정과 중재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노사양측의 대립상황만 반복해서 보도하거나 시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갈등의 요소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론이 버스 파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의견수렴과 총체적인 여론형성과정을 이루어 적극적으로 프레임을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겠다. 첫째, 파업이나 갈등을 지역방송사에서 대부분 부정적 시각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이나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사회는 갈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갈등 보도 구성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또한 언론이 갈등 주체들 간에 중재 및 조정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심층적 보도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파업관련 뉴스에서 갈등대치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많고, 피해자 프레임과 무능한 정부 프레임을 제외한 다른 프레임들은 비율 면에서 낮게 나타나 그만큼 언론이 사회갈등에 관해 편향된 보도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언론은 시청자에게 여러 프레임을 다양하게 보도함으로써 사건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갈등대치 프레임이 높게 나타나고, 일화중심적 보도성향을 보인 것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흥미위주의 보도태도로서 오히려 파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주요행위자의 집중화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주요행위자로서 사측과 노측의 위원장과 일반 시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전문가의 인터뷰가 적고 취재원이 중복되어 사건에 대한 깊이와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로 노사 양측의 입장만을 표명하고 승객의 불편함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고려하여 주요행위자를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언론은 시민을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보도하고, 버스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노사양측과 정부로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능동적인 주체로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이 시민에게 있음에도 시민은 피해만을 호소하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은 시민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질문을 하는 보도관행에서 벗어나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시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북지역 방송 3사가 제시하고 있는 버스파업의 해결 방안이 제한적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 도입만을 주장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지역 언론은 갈등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전주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지역방송 3사 보도의 뉴스프레임의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텔레비전의 특성상 매일 매일 뉴스를 제작해야 하므로 늘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관행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언론이 사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행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뉴스는 사회현실을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시청자가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심도있고 균형 잡힌 보도가 요구된다. 언론이 사회갈등 이슈에 관해 다룰 때 부정적인 시각 이외에 다양한 목소리와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방송사마다 같은 포맷의 구성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각

채널마다 차별화된 보도를 위해서 유사한 방식을 재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안

본 연구는 프레임을 추출하는데 있어 귀납적인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이는 다양한 뉴스보도에서 프레임을 추려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으나, 한정된 프레임으로만 제한하다 보니 몇몇 보도들은 이미 도출된 프레임들의 분류와 개연성이 떨어지더라도 가장 근접한 프레임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프레임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프레임의 범주와 분류의 기준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텔레비전 뉴스보도는 언어적인 메시지 뿐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 및 사운드, 텍스트의 색깔과 크기 등 이미지를 통해서도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보도의 시각적 이미지나 사운드를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뉴스텍스트의 프레임 분석을 통해 특정 이슈보도에 나타난 주요 프레임 기제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에 따라 프레임의 효과분석은 제외되었다. 수용자는 미디어가 어떻게 이슈의 현실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텔레비전뉴스의 프레임과 수용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2.

REFERENCES

- [1] M. S. Na, Framing an issue of building a nuclear waste site on television new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 26, pp.1-33, 2004.
- [2] Tuchman, G..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1987.

- Gitlin, T..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Fowler, R.,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London: Academic press. vol. 4, pp.61-83, 1985.
- Gamson, W. & Modigliani, A.,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5, No.1, pp.1-30, 1989
- Entman, R.,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3, No.3, pp.51-58, 1993.
- [3] Lippmann, W.. *Public opin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92.
- [4] Tuchman, G..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1987.
- Gitlin, T..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5] Hartley, J.. *Understanding news*. London & NY: Methuen, 1982.
- [6] M. S. Na, Framing an issue of building a nuclear waste site on television new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 26, pp.1-33, 2004.
- [7] Goffman, E..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1974.
- Minsky, M.. *A Framework for Representing Knowledge*, 1975.
- Tuchman, G..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1987.
- Gitlin, T..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Gamson, W., *Talking politic*,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92.
- Entman, R.,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3, No.3, pp.51-58, 1993.
- J. W. Rhee, Frames, Interpretations and communication effects, *Media & Society*, Vol. 29, pp.85-153, 2000.
- J. W. Rhee, Testing the framing model of public opinion process: news frames, interpretive frames, and praming effects on opin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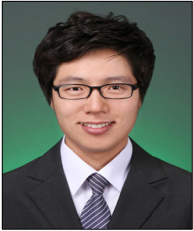
- Studies, Vol. 49, No. 1, pp.130-160, 2005.
- W. Y. Kim & D. H. Lee, A study on news frame and news making proc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No. 4, pp.352-382, 2004.
- [8] M. S. Na, Framing an issue of building a nuclear waste site on television new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 26, pp.1-33. 2004.
- [9] Gamson, W., Talking politic,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92.
- [10] Goffman, E..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1974.
- [11] C. S. Kim,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s framing on labor-management dispute through verbal and visual analysis : Focusing on TV news and newspapers about strikes, Ph.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2008.
- [12] Entman, R.,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3, No.3, pp.51-58, 1993.
- [13] M. S. Na, Political News and the Diversity of Opinion, Korea Press Foundation, 2002.
- [14] M. S. Jung, Analyzing media frames of Korea-U.S. relations : focusing on the newspaper editorials during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M.A.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8.
- [15] Iyengar, S., & Simon, A.. News coverage of the Gulf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Vol. 20, pp.365-385, 1993.
- [16] E. Y. Na, Effects of news framing on attitudes and response to social reality, M.A.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Rhee, J. W.. Strategy and issue frames in election campaign coverage: A social cognitive account of framing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7, No.3, pp.26-48, 1997.
- [17] M. S. Jung, Analyzing media frames of Korea-U.S. relations : focusing on the newspaper editorials during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M.A.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8.
- [18] J. H. Ma,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news frames about Roh's suicide, M.A.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0.
- S. H. Park,. An analysis on the media frames for Seoul metropolitan city's free meal service policy, M.A.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1.
- [19] Iyengar, S..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w York, pp.211-277, 1991.
- [20] S. H. Park,. An analysis on the media frames for Seoul metropolitan city's free meal service policy, M.A.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1.
- [21] Iyengar, S., & Simon, A.. News coverage of the Gulf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Vol. 20, pp.365-385, 1993.
- [22] M. S. Na, Framing an issue of building a nuclear waste site on television new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 26, pp.1-33. 2004.
- C. S. Kim,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s framing on labor-management dispute through verbal and visual analysis : Focusing on TV news and newspapers about strikes, Ph.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2008.
- [23] S. N. Kim, Frame analysis of television news on prostitu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16, No. 2, pp.41-65, 2002.
- J. H. Yang, Media framing of a social conflict: a case study of medical doctors' strike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5, No. 2, pp.285-312, 2001.
- Entman, R.,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3, No.3, pp.51-58, 1993.
- Iyengar, S., & Simon, A.. News coverage of the Gulf

-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Vol. 20, pp.365-385, 1993.
- [24] Gitlin, T..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25] M. S. Na, Framing an issue of building a nuclear waste site on television new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 26, pp.1-33. 2004.
- [26] J. G. Jang, Study on the media's framing of a social conflict: case of Han-jin Heavy Industries Co.'s labor conflict issues, M.A.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2012.
- [27] Semetko, H. A., & Valkenburg, P. M.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0, No.2, pp.100-110, 2000.
- [28] Best, J., *Images of issues: Typifying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Longman, 1995.
- [29] J. H. Yang, Media framing of a social conflict: a case study of medical doctors' strike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5, No. 2, pp.285-312, 2001.
- [30] Y .H. Kim & H. J. Kim, A study on media frame of Korea-US relations, *Anti-Americanism & the Media in South Korea*, Vol. 43, No. 2, pp.123-149, 2003.
- [31] Y. J. Lim,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frame of social disputes on the selected TV news: the 2009 Youngsan accident through MBC, KBS, SBS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3, No. 5, pp.56-62, 2009.
- [32] J. H. Yang, Media framing of a social conflict: a case study of medical doctors' strike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5, No. 2, pp.285-312, 2001.
- [33] Ryan, C.. *Prime Time activism: Media strategy for grassroot organizing*, Boston: South End Press, 1993.
- Wolfsfeld, G., *Media and the Path to Pe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J. H. Yang, Media framing of a social conflict: a case study of medical doctors' strike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5, No. 2, pp.285-312, 2001.
- [34] C. S. Hwang, A New Approach to the News Report of Conflict Issue, Korea Press Foundation, 2008.
- [35] N. J. Choi, A comparative study of local newspapers' news frame: focus on nuclear waste site reporting,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 27, pp.283-316, 2004.
- Y. J. Lim,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frame of social disputes on the selected TV news: the 2009 Youngsan accident through MBC, KBS, SBS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3, No. 5, pp.56-62, 2009.
- [36] 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Bad New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6.
- [37] Iyenger, S..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w York, pp.211-277, 1991.
- [38] H. S. Kim, Gender construction and its meaning of television news, M. H., Kim & K. H. Jung(ed.), *Gender Politics in Mass Media*, Nanam, pp.59-93, 1999.
- [39] Y. J. Lim,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frame of social disputes on the selected TV news: the 2009 Youngsan accident through MBC, KBS, SBS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3, No. 5, pp.56-62, 2009.
- [40] Gamson, W., *Talking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92.
- [41] S. N. Kim, Frame analysis of television news on prostitu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16, No. 2, pp.41-65, 2002.
- [42] J. H. Yang, Media framing of a social conflict: a

case study of medical doctors' strike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5, No. 2, pp.285-312, 2001. S. N. Kim, Frame analysis of television news on prostitu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16, No. 2, pp.41-65, 2002.

[43] J. W. Rhee, Frames, Interpretations and communication effects, Media & Society, Vol. 29, pp.85-153, 2000.

김 성 진(Kim, Sung Jin)



- 2008년 2월 : 전북대학교 자연과학 대학 분자생물학과(학사)
- 2013년 2월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 학과(석사)
- 관심분야 : 방송
- E-Mail : crab9981@naver.com

나 미 수(Na, Mi Su)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 방송학과(석사)
- 2001년 7월 : 영국 버밍엄대학교 문화연구학과(박사)
- 2003년 8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방송, 대중문화
- E-Mail : misuna@hanmail.net